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6 pp. 501-513, 2019

https://doi.org/10.5762/KAIS.2019.20.6.501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 탈북 청소년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조현섭[1], 채경희[2*]
[1]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2]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 A Study on the Decisive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

Hyun-Seob Cho[1], Kyung-Hee Chae[2*]
[1]Dept. of Addiction Rehabilitation Counseling, Chonshin University
[2]Dept. of Christian Edu, Chon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탈북 청소년의 성공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설정하여 이들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아울러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진로 상담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인 중·고등학생 174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12일부터 19일까지 총 204부에 대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와 AMO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진로준비행동과 상관이 높은 변수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적지지($\beta$=.107) 보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beta$=.388)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beta$=.107, p>.0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완전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Indirect effect=.307, p<.05, Z-value=2.924, p<.01). 본 경구의 결과는 탈북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고 진로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통한 정서, 정보, 물질, 평가적 지지가 자신에게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이러한 지지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가치 혹은 진로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직업관과 가치관을 정립시킬 수 있는 행동적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which i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preceding studies, the researchers determined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s the key influencing variables for the successful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and these variables, while ident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In addition, there is an objective to provide effective career counseling materials. For this study, a total of 174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who were in their middle and high schools, were interviewed and the resultant data were analyzed the data based on the questionnaire data of 204 copies from March 12 to 19, 2019.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SPSS and AMOS statistical suites were used to verify the hypothesi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of the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were all positively related. Especiall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has been identified as the variable that is highly related to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Second, rather than social support($\beta$=.107), Career Decision Self-efficacy($\beta$=.388) turned out to have more profound direct influence on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Third, social support did not influence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directly($\beta$=.107, p>.05) but completely intermediate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o influence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Indirect effect=.307, p<.05, Z-value=2.924, p<.01).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of the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y perceive the emotional, informational, material, and evaluative supports from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re perceived and identify the abilities, values, and career desires of themselves through a behavioral planning that can establish a professional and value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m.

**Keywords :**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Chae(ChonShin Univ.)
Tel: +82-2-3479-0534 email: khchae@chongshin.ac.kr
Received April 11, 2019 Revised May 13, 2019
Accepted June 7, 2019 Published June 30, 2019

## 1. 서론

현대 사회에서의 고등교육으로 인한 직업훈련 및 재학기간의 연장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학령기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1].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남한 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탈북 청소년들의 문제는 다양화되고 있다.

북한탈북 청소년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학교,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들은 남·북한 교육 및 체제, 언어, 문화, 학습 내용의 차이와 제3국 경유 및 국내 입국 이후의 학습공백으로 인한 학업부진을 경험한다[2]. 또한 남한에 정착하기까지 이들은 극심한 불안, 심리적인 고통, 또래 친구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자아존중감 저하, 다양한 좌절경험, 적대감과 같은 사회적, 심리적 관계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3-4]. 이러한 북한이탈청소년의 부적응은 취학 및 편입 포기에, 취업의 어려움까지 가중되면서 이후 진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 즉,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응 차원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는 있지만, 탈북 청소년들은 한국 청소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들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통한 분석과 이해가 적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정착을 위한 성공적 적응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6].

이러한 환경 속에서 탈북 청소년이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로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진로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일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7]. 변화된 시대 속에서 직업의 다양성 증가와 새로운 직업군의 창출로 인하여 직업 가치관 자체의 변화와 개인의 장래의 불확실성 등에 의하여 탈북 청소년은 적절한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아실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8].

탈북 청소년이 경험하는 이러한 스트레스는 진로준비행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심리적인 변인으로 진로성숙도[9-10], 진로자기효능감[11-12]과 구조적인 원인이 되는 진로결정수준[13-14], 진로장벽[15-16]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내적 특성을 통해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17-19].

또한 청소년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에는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타인에게 어느 정도의 의존과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주변과 관계로부터 지지를 받음으로 인하여 내적 성장과 외적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되어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과 관련하여 높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사회적지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개인 인식의 정도가 개인의 진로발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20] 즉,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공된 자원으로써 심리적 적응과 좌절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지지는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다[21]. 다시 말해 사회적 지지는 의미가 있는 다른 사람이 본인이 원할 때 쓸모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개인이 여러 부분의 자기 삶의 영역에서 본인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만족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보편적인 평가를 말한다[22].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진로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긍정적 자원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의미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당면했을 때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16]. 청소년의 진로발달 과정에 영향을 주는 연구 중에는 이들의 진로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제시된다[23-24].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초기 이론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공에 관한 확신이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25].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갖는 기대는 개인이 특정 과제를 수행하고 지속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26], 이는 진로와 연관된 결정에 있어서 인지적인 부분과 더불어 동기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27].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택해야 하거나 도전을 해야 할 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등에 강한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탈북 청소년의 성공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설정하여 이들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아울러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진로상담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데 목적이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북한 탈북 청소년의 개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1]의 제2조와 제3조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의거,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지칭한다. 그리고 이 법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온 북한주민이다. 따라서 북한탈북 청소년은 북한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아동·청소년'을 일컬으며, 부모가 북한 출신으로 중국 및 제3국에서 출생한 아동·청소년도 북한이탈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북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입국하는 청소년 가운데 부모가 북한이탈 과정에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출생한 자녀가 다수 존재하고, 그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28].

탈북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인 연령은 청소년의 연령과 관련하여,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북한이탈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다[29-30]. 대다수의 북한탈북 청소년들은 북한이탈 과정과 체류 기간 동안 적절한 영양 공급과 교육을 받지 못하여 신체적으로나 학업적으로 많은 지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처한 사회적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법적 연령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학업적, 정서적, 문화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29]. 이에 본 연구에서 북한탈북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기본법'의 연령 기준을 참고하면서, 학교에 재학 중인 전 연령의 북한이탈청소년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탈북청소년의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육부에 따르면 2008년 10.8%에 속했던 학업중단율은 최근 2.1%로 낮아졌다. 즉, 북한탈북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의 구체적인 사유는 교육부 자료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학교 밖 북한이탈청소년들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학교가 아닌 밖에 있는 이유로 진학은 했으나 미적응 등의 문제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교 밖으로 나간 경우이거나 본인의 진로선택을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 밖으로 정한 경우, 혹은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와 정보 부족 등으로 학교 진학 자체를 포기한 경우로 볼 수 있다[31]. 그중에서 일반 학교에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입시 중심의 학업 풍토,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감춰야 하는 것에 대한 고충, 나이와 학년 차이에서 보이는 또래와의 관계 형성 등의 문제로 학업을 그만두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탈북 청소년의 지역사회의 인식에 대한 특징으로는 한에서 남한으로 오게 되는 북한이탈의 과정에서 제3국 체류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체류는 단기간인 경우도 있지만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유년 시절 다양한 문화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Hoersting과 Jenkins(2011)는 유년 시절 이러한 '이동성(mobility)'을 겪게 되는 경우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다는 문화적 소속감 부재를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남한에서 성년기의 낮은 자존감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32]. 이러한 점은 아동기에 '북한이탈'을 경험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특징의 일면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이주는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앞서 이주한 다음, 자녀를 초대하는 '연쇄적 이주'의 과정으로 진행된다[33]. 이러한 이주 과정은 '분리(separation)와 재결합(reunification)'으로 설명되었는데,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이탈 과정 중에 '분리' 또는 '재결합'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4].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한국에 온 이후 학교나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차이'로 인하여 소수자적 위치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남한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사회관계망에서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지지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북한이탈청소년도 존재하며 대부분이 자신의 처지와 같은 사람들과 서로의 지지원으로 결속되어 있어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5]. 그리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사회적 지지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정착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공식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사람들보다 우정, 애정, 혈연으로 이루어진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지지가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사회·문화·심리적 안정과 적응에 효과적이다[36]. 북한이탈청소년은 시간이 흐를수록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남한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이 저하되어 충동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사회, 심리, 문화적 측면의 문제와 내적으로 학교, 진로 고민, 대인관계 등 일상적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2 사회적지지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를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 받으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의사소통 관계망의 일원이라는 것을 신뢰하도록 하는 정보라고 정의한다[37]. 그에 의하면, 지지에는 사회적지지 이외에도 적극적지지, 물질적지지 도구적 지지가 있다. 도구적 및 물질적 지지는 후에 학자들에 의해 사회적지지 개념에 포함된다[38]. Weiss(1974)는 가치의 확신, 사회적 통합, 신뢰할 수 있는 양육의 기회, 유대감, 애착, 지도 및 지침 등 6가지 사회적 기능들을 제시한다[39]. 이들이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제공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욕구 충족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Kaplan(1977)은 환경적인 공급을 받음으로써 기본적으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혹은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심리적 지지원이 공급되는 것을 사회적 지지라고 하였다[40].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며 하위자원은 자존감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분류된다고 하였고[41], Lin(1986)은 지지를 제공하는 이들과의 접촉 범위와 빈도 및 사람의 수 등을 포함시키고 사회관계망 그 자체를 사회적 지지로서 정의하였다[4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지지를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망, 지지적 행동유형, 기본적 욕구 충족의 측면에서 정의되어 왔다. 이에 명확한 개념화의 요구가 시급해졌고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들을 몇 가지로 범주화시켜서 정리해보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선 Barrera(1986)는 사회적 지지를 실제 지지 행동, 지각된 지지, 사회적 유대의 세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43]. 사회적 유대는 환경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 간의 관계나 연계를 나타내고, 지각된 지지는 환경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지지의 유무 혹은 지지에 대한 만족감으로 측정되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이며, 실제 지지 행동은 지지적 교환 및 접촉의 빈도라고 개념화하였다.

사회적 지지기능의 다차원적인 접근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소를 3가지로 제시했는데,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정서적 지지, 가치 있고 존경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존경 지지, 대화가 가능하고 상호 의무가 있는 관계에 속한 구성원임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정보인 관계망 지지를 포함시켰다[37]. 그리고 Thoits(1986)는 사회적 지지는 사회·정서적 지지(고양, 수용, 이해, 애정, 자존심)와 구체적 지지(경제적 도움, 정보, 조언, 책임 있는 도움)에 대한 욕구로 충족된다고 하면서 정보적 지지, 사회·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로 사회적 지지를 분류하고 있다[44].

박윤숙(2008)은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일탈과 문화적응과 같은 외현화 된 문제보다 우울, 정서적응과 같은 내면화된 심리적 문제에서 적응에 약간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밝혔다[45]. 김재엽 외(2013)의 연구에서는 탈북여성의 자살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그들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의 비공식적인 사회적지지의 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46]. 이와 같이 탈북자들은 남한생활의 적응과정에서 사회적지지를 통해 긍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과 연관된 개인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수행능력에 관한 굳은 믿음으로[47],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25].

Bandura(1986)는 개인의 과업 또는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케 하는 개인의 수행능력에 관한 믿음을 자기효능감으로 정의하고[25],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행위와 그에 따른 변화를 미리 짐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핵

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인간발달의 전반적인 측면과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결정에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며 언제까지 그 일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26].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상황적 여건과 복잡성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는 예측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즉,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은 학업, 진로선택 등의 특정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수행정도를 예측하지 못하는데, 이는 진로분야의 특정한 자기효능감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48]. 따라서 자기효능감을 진로행동이나 진로선택에 관련하여 살펴본 개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Betz와 Hackett(1981)는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모든 측면의 진로상황과 연관된 자기효능감의 측도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24]. Betz와 Hackett(1986)는 진로선택 및 적응에 연관되는 자기효능감을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 하였는데[47], 인간의 행동과 연관된 여러 가지 심리적 변인을 나타낼 때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고 학문적 진로선택, 진로결정 또는 성취 행동 과정에서 성공 결정 여부를 미리 짐작함으로써 진로발달 모형에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되었다[24]. 일반적 측면에서 개인적 효능감은 성공의 대리경험 혹은 실제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효능감을 향상시키며, 이와 반대로 실패는 개인적 효능감은 떨어지지만, 이것이 노력으로 해결되었을 경우 동기화되어 그 노력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직업 및 진로 분야에서도 진로탐색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흥미와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후 Taylor와 Betz(1983)가 진로결정과 연관된 과업과 행위에 관한 특정 영역을 판단하는 개인적 자기효능감의 측도가 가능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DMSE)'를 개발하였다[49]. 이는 보편적인 진로결정과 연관된 진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개념이다.

허은영과 강혜영(2007)의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의 진로자기효능감이 남한청소년에 비해 낮지 않음은 목숨을 무릎 쓴 탈북과 입국 과정 속에서 얻은 강한 생명력과 다른 사회의 소수집단과는 달리 언어적 장벽이 비교적 적다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50]. 한편, 남한여성과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연구[51]는 탈북여성이 남한여성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탈북자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경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 2.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시사점을 준 Brown과 Heath(1984)는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들은 미리 충분히 예측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다[52].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대(expectedness), 준비(preparedness), 그리고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다. 이 중에서 특히 '준비'는 예상 가능한 좋지 않은 결과에 관한 구상과 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개발, 그런 부정적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행동적인 노력 등을 요구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도 우리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진로선택을 미리 가늠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특히 행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진로준비행동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행동 차원의 진로 준비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김봉환과 김계현(1997)은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준비행동이라는 개념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하였다[53].

진로준비행동의 또 다른 유사 개념으로 취업준비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이 있다. 이제경(2004)에 따르면 취업준비행동이란 대학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분야나 회사에 취업할 목표로 준비해 나아가는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이다[54]. 여기에는 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현재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포함된다. 이는 본격적 취업준비행동과 예비적 취업준비행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비적 취업준비행동은 외국어 성적 획득, 관심 분야의 인턴 경험, 자격증 취득, 학점관리 등과 같은 행동을 의미한다. 반면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은 본인이 목표로 하는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시험 또는 면접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하지만 진로준비행동과 비슷한 맥락인 진로성숙도에 대한 연구[50]를 살펴보면, 탈북청소년들은 진로성숙도 중, 독립성 부분이 남한청소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공산주의는 개인주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남한의 개인주의와 북한의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지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진로 영역에 있어서 사회·환경적 변인인 사회적 지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주변의 관심과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청소년의 특성으로 자신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진로에 대한 준비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55].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실질적인 진로준비를 위한 행동적 측면인 진로준비행동에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나,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보면, 송현심과 홍혜영(2010)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9],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중 정보적 지지만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효진과 장윤옥(2011)의 연구에 따르면 공업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구, 교사, 부모의 지지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56]. 고명숙(2014)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되었다[57].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호연(2017)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주는 영향에 있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8]. 이어 라문숙(2017)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있어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지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또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9].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사회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한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진로태도, 진로성숙, 그리고 진로탐색활동 등과 관련하여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60-62]. 이러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와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선행연구결과[63-64]]와 진로준비행동과의 유의한 결과[65-67]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지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김효진과 장윤옥[56]의 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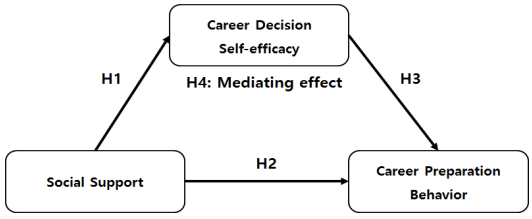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H1.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탈북 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68]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황현진(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69]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는 정서적지지 3문항, 정보적지지 3문항, 물질적지지 3문항, 평가적지지 3문항으로 총 12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측정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의 평균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정서적지지 .830, 정보적지지 .800, 물질적지지 .808, 평가적지지 .828, 사회적지지 전체는 .839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1983)가 구상한[49]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DMSES)를 Betz와 Voyten(1997)이 단축형 척도(CDMSES-SF)[70]로 재구성하였으며, 국내에서 이은경(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48]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 5문항, 직업정보 5문항, 미래계획, 5문항, 목표선택 5문항으로 총 20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측정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의 평균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문제해결 .768, 직업정보 .666, 미래계획 .751, 목표선택 .787,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는 .922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과 김계현(1997)에 의해 개발된 측정도구[53]를 바탕으로 김형균(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71]를 사용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정보수집행동 5문항, 도구준비행동 5문항, 목표달성행동 5문항으로 총 15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측정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의 평균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정보수집행동 .935, 도구준비행동 .908, 목표달성행동 .901, 진로준비행동 전체는 .953으로 나타났다.

###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와 청소년의 시기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청소년 기본법(9세 이상 24세 미만)의 범위를 고려하여 탈북학생 중에서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로 정한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이주 과정에서 일반 학령기와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교 재학생까지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러한 연구 대상자는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입국한 주민 중 만 9 세에서 만 22 세까지의 청소년으로 남한 내 적응교육기관인 '하나원'을 퇴소한 후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한국적을 가진 청소년'이며, 2019년 3월 12일부터 19일까지 총 21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방법은 조사자들이 직접 탈북청소년을 대면하여 일일이 문항을 체크하고 응답하는 방식을 취했다. 설문조사 결과 총 210부 중 204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7.14%를 기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는 남성이49.5%(101명), 여성 50.5%(103)로 나타났으며, 연령으로는 10세-12세 13.7%(28명), 13세-15세 21.1%(43명), 16세-18세 37.3%(76명), 19세-21세 27.9%(57명)로 나타났다. 가족 동거 유무로는 그렇다가 90.2%(184명), 아니다 9.8%(20명)이며, 남한 거주 기간으로는 3년 이하 44.1%(90명), 4년-6년 22.1%(45명), 7년 이상 23.5%(48명), 10년 이상 10.3%(21명)이다. 거주 지역으로는 서울 51.0%(104명), 경기 28.4%(58명), 인천 11.3%(23명), 기타 9.3%(19명)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Division | | N | % |
|---|---|---|---|
| Sex | Male | 101 | 49.5 |
| | Female | 103 | 50.5 |
| Age | 10 to 12 years | 28 | 13.7 |
| | 13 to 15 years | 43 | 21.1 |
| | 16 to 18 years | 76 | 37.3 |
| | 19 to 21 years | 57 | 27.9 |
| With or without family | Yes | 184 | 90.2 |
| | No | 20 | 9.8 |
| Residence | Seoul | 104 | 51.0 |
| | Gyeonggi-do | 58 | 28.4 |
| | Incheon | 23 | 11.3 |
| | Etc | 19 | 9.3 |
| South Korea residence period | Less than 3 years | 90 | 44.1 |
| | 4-6 years | 45 | 22.1 |
| | More than 7 years | 48 | 23.5 |
| | More than 10 years | 21 | 10.3 |

## 4. 연구결과

###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개념신뢰도인 CR(composite reliability: CR)과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신뢰도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Table 2〉. 또한 〈Table 2〉와 같이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모형의 변수에 대한 적합도가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였고, 〈Table 3〉과 같이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부하량($\lambda$)이 0.633에서 0.960으로 나타나 각 요인에 대한 수렴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 간 공분산 계산을 통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Table 4〉. 이러한 상관계수에서 0.90 이상이면 두 변수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수의 제거를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될 변수에 관한 상관관계행렬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지만 0.9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2.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hi 2$(p) | df | RMR | GFI | NFI | IFI | CFI | RMSEA |
|---|---|---|---|---|---|---|---|
| 86.439 (p=0.000) | 41 | .023 | .948 | .955 | .976 | .976 | .063 |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 Path | | | S.T $\beta$ | S.E. | t-value | Concept reliability | AVE | Cronbach's $\alpha$ |
|---|---|---|---|---|---|---|---|---|
| Social Support | → | Emotional | 0.684 | Fix | - | 0.852 | 0.590 | 0.839 |
| | → | Informative | 0.656 | 0.130 | 6.101*** | | | |
| | → | Materialistic | 0.769 | 0.157 | 8.514*** | | | |
| | → | Evaluative | 0.673 | 0.142 | 6.277*** | | | |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 | Problem solving | 0.834 | Fix | - | 0.965 | 0.874 | 0.922 |
| | → | Job information | 0.842 | 0.057 | 17.255*** | | | |
| | → | Future plan | 0.916 | 0.058 | 19.658*** | | | |
| | → | Select goal | 0.865 | 0.064 | 18.001*** | | | |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 | Information gathering | 0.953 | Fix | - | 0.922 | 0.803 | 0.953 |
| | → | Tool preparation | 0.633 | 0.045 | 12.760*** | | | |
| | → | Achieve the goal | 0.960 | 0.035 | 26.844*** | | | |

***$p$<.001, **$p$<.01, *$p$<.05

Table 4. Correlation

| | Social Support | | |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 |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1 | 1 | | | | | | | | | | |
| 2 | .395** | 1 | | | | | | | | | |
| 3 | .440** | .264** | 1 | | | | | | | | |
| 4 | .240** | .194** | .424** | 1 | | | | | | | |
| 5 | .348** | .327** | .492** | .295** | 1 | | | | | | |
| 6 | .383** | .351** | .476** | .286** | .701** | 1 | | | | | |
| 7 | .422** | .374** | .596** | .324** | .738** | .772** | 1 | | | | |
| 8 | .374** | .329** | .533** | .258** | .773** | .706** | .782** | 1 | | | |
| 9 | .179** | .126* | .335** | .150* | .365** | .371** | .450** | .391** | 1 | | |
| 10 | .206** | .136* | .273** | .169** | .326** | .334** | .330** | .338** | .594** | 1 | |
| 11 | .199** | .182** | .345** | .144* | .343** | .345** | .414** | .387** | .714** | .611** | 1 |

1=Emotional, 2=Informative, 3=Materialistic, 4=Evaluative, 5=Problem solving, 6=Job information, 7=Future plan, 8=Select goal, 9=Information gathering, 10=Tool preparation, 11=Achieve the goal

**$p$<.01, *$p$<.05

## 4.3 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chi 2$, GFI, AGFI, RMR, NFI,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Table 5. Research Model fit

| $\chi 2$(p) | df | GFI | CFI | NFI | IFI | TLI | RMR | RMSEA |
|---|---|---|---|---|---|---|---|---|
| 86.439 (p=0.000) | 41 | .948 | .976 | .955 | .976 | .968 | .023 | .063 |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알아본 결과〈Table 6〉, 가설 1인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3인 ' 탈북 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지지되었고, 가설 2인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59, $p$<.01).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16, $p$>.05), 탈북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59, $p$<.01). 또한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62.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을 32.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 Hypothesis | | | S.T $\beta$ | S.E. | C.R. | P | S.M.C |
|---|---|---|---|---|---|---|---|
| Social Support | →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791 | .117 | 8.074 | .000 | .626 |
| Social Support | →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107 | .268 | 0.803 | .422 | .328 |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388 | .210 | 3.141 | .002 | |

***$p$<.001, **$p$<.01, *$p$<.05

다음 〈Table 7〉은 가설 4인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가설 4인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분석결과,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p$>.05), 간접효과와 총효과는 유의수준 $p$<.0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Table 7. Indirect effect analysi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Independant Variable | parameter | dependant Variable | Direct effect | | Indirect effect | | Total effect | |
|---|---|---|---|---|---|---|---|---|
| | | | Path factor | P | path factor | P | Path factor | P |
| Social Support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107 | .422 | .307 | .025 | .414 | .004 |

***$p$<.001, **$p$<.01, *$p$<.05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간접효과 분석 결과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최종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72]한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8〉과 같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 분석 결과 사회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는 분석 결과가 나타나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완전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8. Sobel-test resul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Independant Variable | parameter | dependant Variable | Sobel-test | |
|---|---|---|---|---|
| | | | Z-value | P |
| Social Support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2.924 | .003 |

##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처를 위해 진로준비행동이라는 결과적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진로를 직접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과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진로준비행동과 상관이 높은 변수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송현심과 홍혜영(2010)[19]과 이순자와 조옥귀(2012)[73]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즉, 청소년의 성공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해서는 주변의 정서, 정보, 물질, 평가적인 지지가 먼저 선행되기 보다는 개인의 자기효능감, 특히 진로준비행동을 위해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율적인 진로준비활동을 하며, 자신이 필요로 할 때 타인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지지보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직업정보, 미래계획, 문제해결 수준이 높아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로와 연관된 준비행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김수리(2005)의 연구결과[74]와 일치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진다는 유미정과 최애경(2008)의 연구[75]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수준이 높아지고,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진다는 조명실과 최경숙(2007)의 연구[60]와도 일치한 결과를 보인다. 즉, 청소년시기에 있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발달과 진로준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이며, 진로와 연관된 행위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내적 심리 변화를 바탕으로 행동적 태도로 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완전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

비행동에 도움을 준다는 이순자와 조옥귀(2012)의 연구결과[73]와 유사하다. 이는,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유의미한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도움과 원조들은 자신의 내면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격려와 지지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유대를 형성시켜주어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탈북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고 진로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통한 정서, 정보, 물질, 평가적 지지가 자신에게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지지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가치 혹은 진로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직업관과 가치관을 정립시킬 수 있는 행동적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내적 발달을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 자신감과 가치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변수가 사회적지지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더 강한 이유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직접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한 청소년 보다 내적·외적 부분이 취약한 탈북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개인의 지지를 높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한 후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자신감과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에 거주 중인 탈북 청소년은 지역적, 국가적 성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고 구조의 한계점을 지닐 수 있으며,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대상으로 보다 확대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E. K. Lee, M. S. Han, "*Today's youth, are you happy?: A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of boys*", Proceedings in Kirean Association of Youth Welfare, pp.71-99, 2007.

[2] Y. Y. Kim, M. A. Son, S. H. Kim, "Effects of family and social relations on happiness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n South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41, No.2 pp.179-205, 2018. DOI: https://doi.org/10.31693/kjps.2018.06.41.2.179

[3] H. K. Shin, H. K. Kim,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s of academic stress, family problem stress and post-traumatic stress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11 pp.337-357, 2015.

[4] M. S. Choi, T. S. Chioi, J. H. Kang,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escaped from North Korea & seeing a counseling strategy",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Vol.9 No.3 pp.23-34, 2006.

[5] J. H. Choi, *Qualitative research on the maladjustment of school life in North Korean defectors.*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of Korea, 2011.

[6] M. S. Kim, D. H. Lee, "Adap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to South Korean society: A review of literature",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20 No.1 pp.39-64, 2013.

[7] S. C. Rhu, S. K. Kim, Y. O. Lee, " The development of career training curriculum for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Korean Education Inquiry*, Vol.35 No.1 pp.47-70, 2017. DOI: https://doi.org/10.22327/kei.2017.35.1.047

[8] K. S. Ahn, " A study on the plan for supporting adolescents defecting from North Korean for their adjustment in South Korea socie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7 No.4 pp.25-45, 2010.

[9] J. E. Park, J. A. Lee, J. Y. Lee, I. J. Jung, "The influence of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pover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3 No.3 pp.93-116, 2011.

[10] J. M. Lee, B. R.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reative personality, university supporting, career matur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Vol.15 pp.41-59, 2015.

[11] K. U. Park, K. H. Lee,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mediated by career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9 No.2 pp.409-422, 2007.

[12] M. J. Ju, J. N. Kim, "The effect of anxiety and career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Vol.27 pp.157-174, 2011.

[13] H. J. Park, B. W. Kim, "The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independence,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8 No.2 pp.419-439, 2006.

[14] C. Y. Yoon, K. A. Kim, "The effect of academic motivatio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school satisfaction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Vol.13 No.1 pp.69-91, 2017.
DOI: https://doi.org/10.25152/ser.2016.64.2.393

[15] M. J. Kim, "Effect of career barrier on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self-regul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9 No.2 pp.89-107, 2016.

[16] J H. Park, M. Y. Hwa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 ident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rier barrie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school dropout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3 pp.1-24, 2017.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7.03.24.3.1

[17] H. Y. Kang, "Verification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for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66 pp.471-481, 2016.

[18] S. H. Cho, Y. S. Kim, "The effect of youth participation behavior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2 pp.605-613, 2017.

[19] H. S. Sonh, H. Y. Hong,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1 No.3 pp.1325-1350, 2010.
DOI: https://doi.org/10.15703/kjc.11.3.201009.1325

[20] R. C. Chope, "Influence of the Family in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Planning and Adult Development Journal*, Vol.17 No.2 pp.54-64, 2001.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05277913

[21] S. H. Han,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indecision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of Korea, 2003.

[22] M. E. Procidano, K. Heller, "Measur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riends and from family: Three validation stud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1 No.1 pp.1-24, 1983.
DOI: https://doi.org/10.1007/bf00898416

[23] J. E. Ryu, J. C. Jung, "An integrative review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career compromise in youth",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0 No.3 pp.25-48, 2017.
DOI: https://doi.org/10.32341/jcer.2017.09.30.3.25

[24] N. E. Betz, G. Hackett,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8 No.5 pp.399-412, 1981.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28.5.399

[25]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No.2 pp.191-215, 1977.
DOI: https://doi.org/10.1037/0033-295x.84.2.191

[26] R. W. Lent, G. Hackett,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30 No.3 pp.347-382, 1987.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7)90010-8

[27] N. E. Betz, D. A. Luzzo, "Career assessment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4 No.4 pp.413-428, 1996.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9600400405

[28] J. W. Kim, J. S. Kim, K, S, Kang, B. R. Yeon, *North Korean youth education white paper.* Seou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5.

[29] E. B. Gil, S. H. Moon, "The policy implications and problems on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youth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0 No.4 pp.163-186, 2003.

[30] C. H. Jang, "Social work approach for the adjustment of children and youth from North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5 pp.175-224, 2001.

[31] T. J. Lee, D. H. Kim, S. S. Yoon, I*n-depth study of North Korean defectors outside the school.* Seou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0.

[32] R. C. Hoersting, S. R. Jenkins, "No place to call home: Cultural homelessness, self-esteem and cross-cultural ident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35 No.1 pp.17-30, 2011.
DOI: https://doi.org/10.1016/j.ijintrel.2010.11.005

[33] Y. A. Cho, "The experiences of child reunification among North Korean wome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4 No.1 pp.197-222, 2012.

[34] J. Y. Na, "Family disorganization in the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oral life story and trauma", *Journal of Konkuk University Humanities Reseach Institute*, Vol.60 pp.97-133, 2014.
DOI: https://doi.org/10.21185/jhu.2014.12.60.97

[35] Y. S. Shim, H. J. Kim, "The problems and solutions in the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s to South Korean society", *Journal of North Korean Studies*, Vol.40 pp.36-66, 2015.

[36] Y. S. Park,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South Korea.* Doctoral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of Korea, 2006.

[37] S. Cobb,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38 No.5 pp.300-314, 1976.
DOI: https://doi.org/10.1097/00006842-197609000-00003

[38] W. S. Lee, *Social network and social support theory.* Seoul: Hongikje, 1995.

[39] R. S. Weiss,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Doing Unto Others*, pp.17-26, 1974.

[40] B. H. Kaplan, J. C. Cassel, S. Gore,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Vol.15 No.5 pp.47-58, 1997.

[41] S. Cohen, H. M.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3 No.2 pp.99-125, 1983.
DOI: https://doi.org/10.1111/j.1559-1816.1983.tb02325.x

[42] N. Lin, "Conceptualizing social support", *In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pp.17-30, 1986.
DOI: https://doi.org/10.1016/b978-0-12-450660-2.50008-2

[43] M. Barrera,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4 No.4 pp.413-445, 1986.
DOI: https://doi.org/10.1007/bf00922627

[44] P. A. Thoits,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54 No.4 pp.416-423,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006x.54.4.416

[45] Y. S. Park,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South Korea", *Forum For Youth Culture*, Vol.19 No.1 pp.79-117, 2008.

[46] J. Y. Kim, K. H. Choi, J. H. Chae, H. J. Hwang,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4 No.2 pp.33-56, 2013.
DOI: https://doi.org/10.16999/kasws.2013.44.2.33

[47] N. E. Betz, G. Hackett,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understanding career choice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4 No.3 pp.279-289, 1986.
DOI: https://doi.org/10.1521/jscp.1986.4.3.279

[48] E. K.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Doctoral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of Korea, 2001.

[49] K. M. Taylor,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No.3 pp.63-81, 1983.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

[50] E. Y. Heo, H. Y. Kang, "A comparison of career maturity and career self-efficacy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and South Korean adolesc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8 No.4 pp.1485-1500, 2007.
DOI: https://doi.org/10.15703/kjc.8.4.200712.1485

[51] Y. S. Jeon, H. Y. Kang,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s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s making levels for North Korean females refugees: Compared with South Korean female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14 No.3 pp.409-425, 2009.
DOI: https://doi.org/10.18205/kpa.2009.14.3.006

[52] S. D. Brown, L. Heath, "Coping with critical life events: An integrative cognitive-behavioral model for research and practice",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545-578, 1984.

[53] B. W. Kim, K.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9 No.1 pp.311-333, 1997.

[54] J. K. Le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differences and individual backgrounds*.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04.

[55] R. C. Chope, "Qualitatively assessing family influence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13 No.4 pp.395-414, 2005.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05277913

[56] H. J. Kim, Y. O. Jang, "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al support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8 No.7 pp.1-32, 2011.

[57] M. S. Koh.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Korea, 2014.

[58] H. Y.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Mater's Thesis, Inha University of Korea, 2017.

[59] M. S. Ra,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career identity and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17.

[60] M. S. Cho, K. S. Choi, "A model testing on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8 No.3 pp.1085-1099, 2007.
DOI: https://doi.org/10.15703/kjc.8.3.200709.1085

[61] H. J. Ahn, M. K. Jung,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elf concept, social support on career maturity mediated by self efficacy using youth panel survey",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21 No.3 pp.297-303, 2015.

[62] M. N. Jung, J. E. Rho,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with adolescents' career maturity", *Studies on Korean Youth*, Vol.27 No.3 pp.133-162, 2016.
DOI: https://doi.org/10.14816/sky.2016.27.3.133

[63] J. U. Kim, H. H. Kim, "The influences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pp.797-814, 2016.

[64] J. Y. Park, "The influence of youth's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self-efficacy regarding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42 pp.187-208, 2018.
DOI: https://doi.org/10.20993/jssw.42.9

[65] S. J. Kim, J. J. Lee,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20 No.1 pp.119-136, 2013.

[66] H. K. Lee, H. W. Kim, E. A. Kim, "The effects of parents-children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Youth Welfare,* Vol.15 No.2 pp.443-466, 2013.

[67] H. K. Lim, Y. S. Kang, "The perceived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in transition period",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17 No.2 pp.211-236, 2015.
DOI: https://doi.org/10.21075/kacsn.2015.17.4.211

[68] J. W.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scale*. Doctoral Thesis, Yeonsei University of Korea, 1985.

[70] H. J. Hw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dolescent self-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of Korea, 2016.

[70] N. E. Betz, K. K. Voyten,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6 No.2 pp.179-189, 1997.
DOI: https://doi.org/10.1002/j.2161-0045.1997.tb01004.x

[71] H. K. Kim, *The concern analysis according to gender and school year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maturity inventor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of Korea, 2002.

[72]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9,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73] S. J. Lee, O. K. Cho,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high school-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rol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s a mediator",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Kyung Nam University,* Vol.22 pp.3-18, 2012.

[74] S. L. Kim, T*h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icision-making self-efficas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Doctoral Thesis, Hongik University of Korea, 2005.

[75] M. J. Ryu, A. K. Choi,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Vol.19 pp.129-153, 2008.

조 현 섭(Hyun-Seob Cho) [정회원]

- 2004년 2월 : 이화여대 발달심리학 박사
- (현) 한국심리학회 회장
- (전) 중독심리학회장 등

〈관심분야〉
심리학, 중독, 상담, 발달, 학교, 북한사회 등

채 경 희(Kyung-Hee Chae) [정회원]

- 2008년 2월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석사
- 2018년 2월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관심분야〉
북한사회, 북한교육,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탈북여성